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5>

영국에서 태어난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은 세계에 널리 퍼져 근대문명을 창출했다. 근대문명을 설명하는 데는 당연히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경제학 이전 고전과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A. Smith)가 저술한 <국부론(國富論 - 富)의 성질 및 원인에 관한 연구>이 출간된 이후 '국민의 부'의 실현을 통해 물질문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스미스의 이론적 체계를 엮은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풍조가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경제학의 원전(原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하면, "각 개인이 자애심(self-interest)에 입각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유 시장 경쟁을 하면 '신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사회적 효율이 극대화되어 국부(國富)를 최대한 증진시킨다"고 한다. 이 명제를 단순히 이해한다면, 경제사회의 부(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이기심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스미스는 <국부론>을 출판하기 전에, <도덕감정론>이란 책을 써서 인간 마음(心)의 본질에 관해서 상세히 논했다. 그는 거기서 '자애심'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경제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즉 <국부론>에는, '자신의 이익(자기중심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해서 안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앞의 말이 오는 것이다. 아마 스

미스는 <국부론>을 읽는 독자는 <도덕감정론>을 이미 읽고 난 사람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에 틀림 없다.

아담 스미스의 시대는 그리스도교의 신(神)이 한 발짝 뒤에 밀려나 자연과 이성에 대한 신앙이 상대적으로 강해진 시대였다.

당시 사회는 자연과 조화될 것이고, 그 사회에서 인간이 이성을 작동시켜 살아간다면, 자연법 가운데 신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만사 순조롭게 해결되어 갈 것처럼 생각되고 있었다.

신이 후퇴함으로써 인간의 외부에 영구불변의 도덕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중세시대의 생각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스미스는, 인간이 행동할 때에는 자애심이 작동하는 원래의 자신 이외에 제3자로서 관찰(재판)하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모두가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의 가슴안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전자를 '안에 있는 나', 후자를 '밖에 있는 나'로 이름 붙였다. 인간은 이 '밖에 있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성실한 행동이 취해지고 '밖에 있는 나'의 소리에 동감(sympathy)이 쌓여서 도덕률이 형성된다고 스미스는 설명하고 있다.

이성(理性)이 존중되어 이성이 유행한 시대에 스미스가 도덕의 근거를 감정에서 구한 점은 실로 의미있게 생각된다.

스미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자신에게는 타인의 행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음 즉, '동류감성'이며,

올바른 자애심으로 경제활동 중심 조화시켜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경제행위 해선 안돼”



그림 · 김필원

그것이 타인(상대)의 몸이 되어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동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이 경우, 동감은 결코 동정(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타적인 감정도, 이기적인 감정도 아니다. 앞에 언급한 '안에 있는 나'와 '밖에 있는 나'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감정인 것이다. 결국 '안에 있는 나'로부터 나오는 감정과 '밖에 있는 나'의 감정이 일치했을

때, 그 감정은 적정(propriety)수준이 되어 중용(中庸)에서는 中道를 얻는다는 것이다. 개인감정이 된 성격을 초월하여 사회도덕원리가 된다고 스미스는 설파하고 있다.

스미스는 이 사회도덕이 당시의 중·하위 계층의 생활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필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당

시의 에피소드로서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자기 부정(자애심)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당시에도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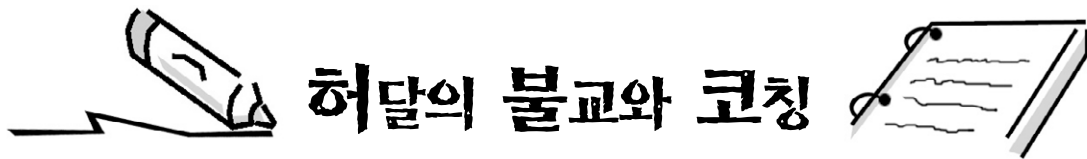
“부처님아시여, 당신은 자신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다.

“아니요, 나도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 데에 비해 나는 자신의 몸이 사랑스러움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담 스미스가 설명한 사회도덕원리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유(私)는 도래를 황금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 사유욕과 이기심(=자애심)을 부정하고서 성공한 경제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사유욕과 이기심 그리고 법질서와 개인책임과를 어떻게 올바르게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현대 국가경제정책의 핵심 과제이다.

인간세계에 뿌리깊은 이기심을 어떻게 하여 경제활동 가운데 타당한 위치에 두게 할 것인가? 거기에 스미스의 고심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 경제학이 제창하고자 하는 '자리타리(自利他利)의 경제학'도, 실은 이미 스미스의 심층 저변에 깊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⑤ 우선순위의 설정



랜드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시한 부 인생을 선고 받았을 때,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남은 시간들을 즐겁고 의미 있는 일들로 채우기로 주도적인 선택을 했을 때, 아마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머리 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은 매우 뜻 깊고, 높은 우선순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세 아이가 자라서 이 강의의 기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준비했을 한 구절 한 구절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눈물을 수반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이들은 자신의 일이라고 늘 생각해 왔지만, 시한부 삶의 선고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존재하게 될 냉엄한 간극을 뚜렷하게 만든다. 내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관계가 남을 뿐이다. 그리고 보니 소중한 것은 모두 관계 속에 존재했었다.

콜 센터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게 물어보니, 8시간의 근무 시간이 모두 위기관리의 연속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고객은 이미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감정이 폭발 단계까지 올라 있어 아주 작은 불친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긴장의 연속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관리하는 기법을 위시해

고객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교육받고 실행한다.

위기관리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119 대원의 위기관리 시간은 근무 시간의 몇 %나 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5% 수준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95%의 근무 시간은 무엇에 사용하는가? 예방, 점검, 계획, 훈련, 기술개발, 출장교육 등에 투입한다는 것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 위기관리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과 나의 관계를 잘 정리해 줘야 높은 효과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삶을 지속되는 위기로 둘러싸이게 놓아줄 것인가, 창조적 긴장과 재충전의 리드미컬한 반복이 있는 나선

형 상으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우선순위 설정의 습관을 실행하고, 체면치레, 인기관리 등 솔깃한 여러 일에 대해 단연코 'No!' 하는 주도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중한 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그것부터 실행하는 삶의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 워크숍을 진행할 때는 참여자들에게 이를 직접 물어보게 된다. 당신에게 소중한 것을 다섯 가지만 써본다면? 또는 여분의 시간이 하루 세 시간씩 주어진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것인데,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 틀림없이,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 갖기, 건강관

주어진 시간 소중한 결정들 부터 실행하라

리, 여행, 명상이나 나만의 시간 갖기, 부모님 찾아 보기, 봉사활동 하기 등의 일들이 소중한 일 목록의 주류를 이룬다. 돈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들어보던 돈 자체보다는 위에 열거한 소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소중한 것들의 목록에 올라간 일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이들은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강화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 일과 나와, 내 안에 있는 나와, 그리고 나와 남의 관계를 끊임없이 쇄신하는 일들이다.

이것들이 소중한 일이라면, 주어진 시간에 이것들부터 하라는 것이 코치가 하는 제안이다.

어느 것이 소중한 일인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가치관이다. 때때로 가치관이 변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원칙과 충분히 접근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적해 주는 일도 코치의 몫이다.

서둘러야 할 때는 서두르고, 침착해야 할 때는 침착한, 현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그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가를 아는 자이기 때문이다. <장로계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깨달음에 다가가는 소중한 일인가? 늘 선택에 앞서 우선순위를 설정해 볼 일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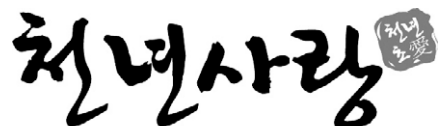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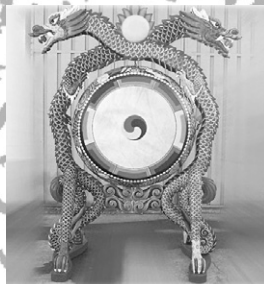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재부심이 남습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만나고 싶어요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